

With my "WAX" medium, I experimented with different techniques. I developed my encaustic wax technique, where I start by covering paper with a thick coat of melted beeswax. Wax comes in different colors, but I prefer 'Burnt umber', 'Burnt sienna', 'Black', and mixes of these three to create an overall uniform tone. Sometimes I use the water base paint to apply a colored underlay on the paper before I covered it with the wax. The surface itself may also be warmed to allow for the manipulation of the encaustic paint. It may also be cooled immediately 'freeze' the brush strokes that are applied to it. After the wax overlay cools down, I scratch out images on the dark box. Then, I might use oil paints or color pencils to apply more detailed variations in color and tone. When this is finished, the artwork has a slight three-dimensional feel to it, though it is on a two-dimensional surface. This is the effect that I was looking for. It is comfortable and gives me the feel of both painting and sculpturing.

Encaustic beeswax painting is the oldest fine art technique in history. Encaustic literally means 'burning In'. This durable medium dates back over two thousand years ago to the days of the Rome, ancient Greece, and even Egypt. Around the Middle Ages, artists turned to tempera, fresco and ultimately oil paint. Although encaustic painting was overshadowed by these simpler painting techniques, it was never completely abandoned. Encaustic is an incredibly versatile, solvent-free medium, eliminating the need for turpentine and mineral spirits. Encaustic highly resistant to yellowing effect, weathering, moisture, and high temperatures, even more so than oil paint.

왁스 페인트는 아주 오래된 채색화 재료이다. 왁스 그림은 동양의 수묵화나 소석회에 안료를 섞어 반죽해 그리는 프레스코 벽화 만큼이나 역사가 깊어 그리스 시대를 거쳐 이집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 가지 색깔의 안료를 밀랍(양초)과 송진과 함께 끓여서 만드는 왁스 페인트는 열을 가해 녹여 주로 나무에 그리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왔다. 금방 식으면서 굳어버리기 때문에 정교하게 묘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수천 년이 지나도록 변색되지 않는 강한 내구성과 접착력은 현재까지 쓰이는 어떤 채색 재료보다 강하다고 한다. 1500년대에 유럽에서 캔버스에 오일로 그리는 방법이 개발된 이후 그리는 재료로서 그 입지를 많이 잃었지만 아직도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다.

내가 왁스 재료를 쓰기 전까지는 유화나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늘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었고 나한테 맞는 재료가 따로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다. 나는 어릴 때부터 손으로 주물럭 거려 무언가 만들기를 좋아했고 평면에 그리는 일 못지않게 입체작업에도 흥미가 많았던 것 같다. 또 대학을 다닐 때 판화에 재미를 붙이다 보니 부드러운 붓끝의 감촉보다 단단하고 날카로운 철판의 딱딱함도 편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긁어가면서 그리는 방법에 흥미를 붙이게 되었고 무엇이든 긁기 위해 미리 칠할 수 있는 재료를 찾다가 왁스 페인트를 발견하게 되었다. 조각가가 큰 돌덩어리 하나를 정으로 쪼아내서 그 안에 갇혀있는 이미지를 끌어내듯이 화면 가득 칠해져 있는 왁스를 긁어나가다 보면 철판 끝의 긁히는 감촉이 판화의 드라이포인트나 에칭 작업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나한테 꼭 맞는 재료를 처음 찾아낸 그때가 바로 1990년 가을이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왁스 페인트로만 작업을 해 오고 있다.



*왁스 페인트를 스토브에 올려서 녹인 후



*넓은 붓으로 화면에 바르고



*여러 가지 철판들로 긁어내며 그린다.